



이석준·박철구 승강기안전공단 양대 노조위원장

“노노관계 안정화·조직문화 융합 위해 통합 공단본연의 임무수행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최근 승강기안전공단 내 양대 노동조합인 한국승강기공단노조와 승강기공단노조가 단일화에 나섰다. 지난 2016년 국내 유일의 승강기검사기관으로 출범한 공단은 과거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양 기관의 노조는 통합 후에도 그대로 존속해오며 노노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공단출범 이후 양 노조는 끊임없이 단일화에 나선 결과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통합결정에 동의했다. 양 노조의 대표인 이석준, 박철구 노조위원장을 만나 통합 배경과 과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승강기안전공단 내 두 노조가 단일화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공단의 노노관계 안정화 및 조직문화 융합을 위해 양 기관 출신의 노동조합 통합은 선결과제였다.

통합공단의 각종제도과 취업규정 등이 노동조합과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통합공단 출범 이후 노사 간 임금체계 일원화, 규정 및 지침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그 과정에서 복수노조체제의 노사협의회 및 교섭위원 구성 등 노사교섭과정 중 발생하는 노노간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노노갈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양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진정한 조직문화통합과 교섭력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통합을 고민해 온 것이다. 통합을 통해 노노갈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교섭비용을 줄이고, 조합원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단일화를 추진했다.

▶단일화 추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됐나.
지난해 2월 양 노동조합 공동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통합 논의에 대해 합의했고, 다음 달인 3월 두 조합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 집행부가 함께하는 ‘노동조합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를 구성·출범하며 본격적인 노동조합 통합논의를 시행했다.

두 조합은 2017년 5월까지 수많은 토론회와 집중회의를 통해 노동조합 통합을 위한 조직구성 합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5월 말 각각의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승강기안전공단 양대 노조의 이석준 노조위원장(왼쪽)과 박철구 노조위원장이 화합과 통합의 의미로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다.

▶양 노조 통합 시 기대되는 효과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공단 구성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단일화에 따른 노동조합 간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지므로 핵심목표에 힘을 집중할 수 있다. 양 노조 조합원 간 또는 통합공단 이후

직원들 간의 갈등과 이질감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조합원 수 증가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대될 수 있다. 신입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나고, 조합원 수가 증대되면 노동조합의 힘과 교섭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교섭력 증대로 단체협약의 질적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상승은 조합원의 노동조건 향상과도 맞물려 있어 중요하다.

▶향후 통합 노조는 어떻게 구성되고,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향후 통합노조 운영 계획도 궁금하다.

앞으로 통합 노동조합 조직구성은 통준위에서 이미 두 조합 간 혼합 리더십메이트 구조의 조직구성에 합의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이 A조합일 경우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B조합 출신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향후 집행부 구성을 3기(9년)까지 혼합구성으로 출마하는 것을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통준위에서 통합 노동조합 규약 및 자산 합병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 대의원대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확정되면 2018년도 통합 정기총회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xixi@

초심 잃지 않고 회원들과 호흡 울산시회, 제21회 정총·유공자 포상

12일 울산시회(회장 김창기)는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임세환 엘비라이프 사장을 비롯해 전경술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병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김춘섭 구의원, 전경술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 하희봉 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정영철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장을 등 내외빈과 협회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울산시회는 이날 김창기 회장을 당연직으로 총 7명의 정대위원을 선출하는 한편 업계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에 힘쓴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창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회는 회원이 주인이고, 협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회를 만들었다 회원사들과 소통해왔다”며

“새해에는 황금 개의 기운을 이어받아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 올해도 늘 초심을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재선 중앙회장은 주무식 이사가 대독한 격려사에서 “울산시회 회원들이 보여주시는 열정은 협회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물에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주라는 교훈을 새기고 회원들의 뜻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한 김성관 이사장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울산시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조합원 여러분께도 올해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조합은 올해도 울산시회 사업의 운영과 회원사분들의 사업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신임 도회장에 이근호 대표 만장일치 추대 경기북부회, 제13회 정총·부회장에 류한덕 대표

전기공사협회 경기북부회 신임 도회장에 이근호 모이중합전설 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2일 경기북부회는 의정부시 소재 ‘경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근호 모이중합전설 대표를 신임 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근호 회장과 함께 회장을 이끌어 갈 부회장은 류한덕 조원전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에는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황영성 경기도청 에너지과장, 이수목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최규만 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욱, 김남준 대진대학교 교수, 김유선 서경대학교 교수 등 내외빈과 협회 전·현직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함께했다. 경기북부회는 또 이번 총회에서 14명의 정대의원과 7명의 후보대의원을 선출하는 한편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에 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근호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 낮은 자세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경기북부회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며 “류한덕 부회장과 함께 우리 경기북부회를 으뜸도회, 명품도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류재선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경기북부회 회원분들이 보여주시는 헌신과 열정은 업계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따듯한 충고와 격려로 협회와 업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환영성 과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전기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산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회원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치사했다. 윤대원 기자



“회원사 화합 가장 큰 과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부족한 저를 아무 이의없이 신임회장으로 추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원님들이 실어주시는 힘의 뒷편에 지리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근호 경기북부회 신임회장(사진)은 “도회를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고, 회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도회 운영 과정에서 회원사들 간의 화합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합심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우리 도회 관내 일거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특히 분리발주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주처들과 소통하는 등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회원에게 다가가겠다”며 “특히 가장 끝에 있는 회원사들까지 소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도회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기술인협회 정기총회

김남천 대표 서울북시회회장 당선 서울북시회, 김영익 감사 선출

김남천 연합전기기술단 대표(사진)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울북시회장에 당선됐다. 전기기술인협회 서울북시회는 12일 종로구 서울YMCA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남천 연합전기기술단 대표를 시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북시회장은 강민구 현 시회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도전자 김남천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 시회장이 유리하

다는 통념을 깨고 김 후보가 새로운 시회장으로 선출됐다. 투표 결과 총 463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2번 김 후보는 252표를 얻어 211표에 그친 강 후보를 41표 차이로 따돌리고 신임 시회장에 올랐다. 이와 함께 김영익 서부전기안전관리 대표가 3년간 감사직을 수행한다. 이어 서울북시회는 시회장(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7명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또 이날 서울북시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부산시회장에 박정철 대표 당선 부산시회, 감사엔 이춘복·공영훈 대표

박정철 정엔지니어링 대표(사진)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시회장에 당선됐다. 전기기술인협회 부산시회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박정철 정엔지니어링 대표를 시회장으로 선출했다. 총 750명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 1번 김익성 후보가 226표, 기호 2번 박정철 후보가 523표를 얻

었다. 무효는 1표가 나왔다. 이로써 박정철 후보는 297표 차이로 김익성 후보를 따돌리고 신임 부산시회장에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와 함께 이춘복 도시엔씨 대표와 공영훈 부경전기안전기술단 대표가 각각 3년간 감사직을 수행한다. 이어 부산시회는 시회장(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또 이날 부산시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김용길 씨 경기남도회회장 만장일치 추대 경기남도회, 한동수·김진수 감사 선출

김용길 백현주공9단지아파트 관리과장(사진)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장에 추대됐다. 전기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는 12일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호텔 캐슬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용길 백현주공9단지아파트 관리과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관리과장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도회장에 추대됐다. 이와 함께 한동수 대명기술단 대표와 김진수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가 3년간 감사직을 수행한다. 이어 경기남도회는 도회장(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대의원도 선출했다. 또 이날 경기남도회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전력산업 발전과 협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석희 기자 xixi@

